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제11호>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현황 및 지원과제*

임수경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2023)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강화 방안 연구(2022)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2020)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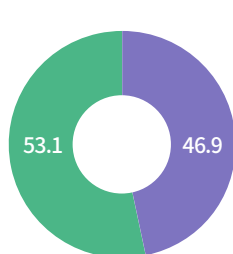
퇴소 전후 자립준비청년의 심적 부담과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 보호 종료 이후 주거불안, 생활고 등 보도는 우리 사회에 많은 안타까움을 주며 자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1년 9월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의 범위,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을 명시하였다.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 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본 고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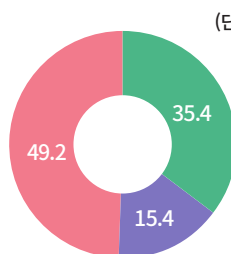
▶ 조사대상 및 참여 현황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조사참여자 298명 중 취업중 자립준비청년 130명 분석

▶ 조사방법 및 조사 기간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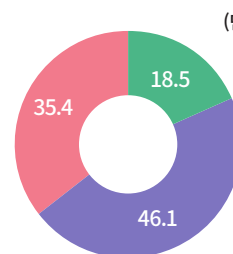
■ 남성 ■ 여성

[응답자 성별]



■ 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가정위탁

[응답자 보호유형]



■ 1년 ■ 2-3년 ■ 4-5년

[응답자 보호종료 연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3년에 수행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임수경, 2023)의 연구결과를 재분석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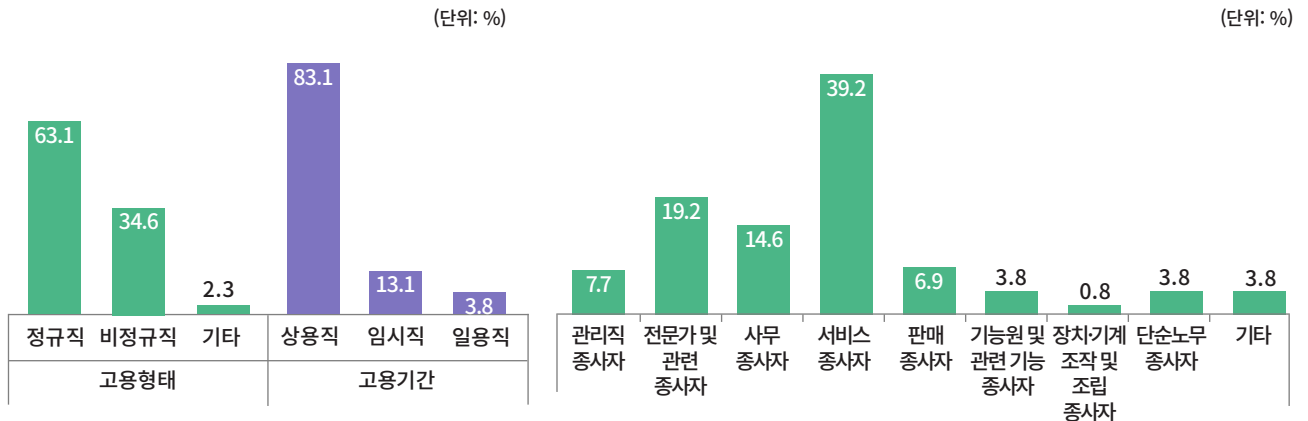
본 고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통계치와 유의수준($p>.10$, $*p>.05$, $p>.01$,

$***p>.001$)을 표기함.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현황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6명 정규직, 10명 중 8명 상용직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임.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직과 전문직 순으로 종사하고 있음.

- 고용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63.1%가 정규직이고, 83.1%가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음. 자립준비청년의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가 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2%), 사무 종사자(14.6%), 관리직 종사자(7.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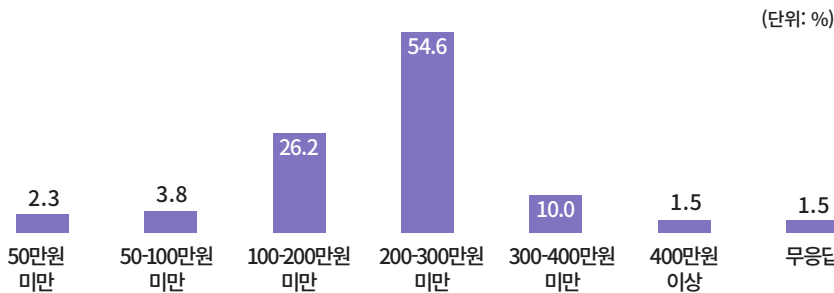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고용 현황

|그림 2|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직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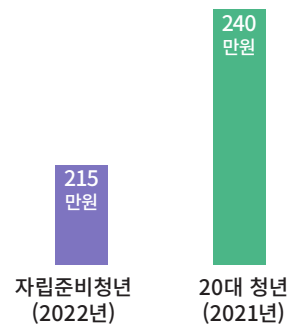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소득 현황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 수준을 보면, 전국 20대 임금근로자¹⁾의 월평균 근로소득(2021년) 대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월평균 근로소득(2022년)은 25만원 낮음.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2022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54.6%)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0.0%)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2022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215.4만원이며, 전국 20~29세 임금근로자의 2021년 월평균 근로소득(240만원) 보다 약 24.6만원 낮음.



|그림 3|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근로소득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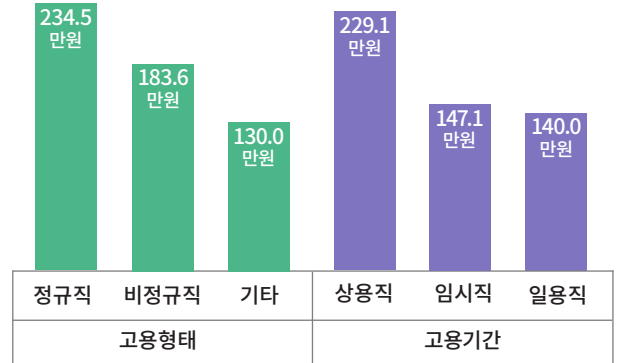
|그림 4| 근로소득 비교

1) 통계청(2023)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현황 및 지원과제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수준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9만원 정도 낮음. 또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82~89만원 근로소득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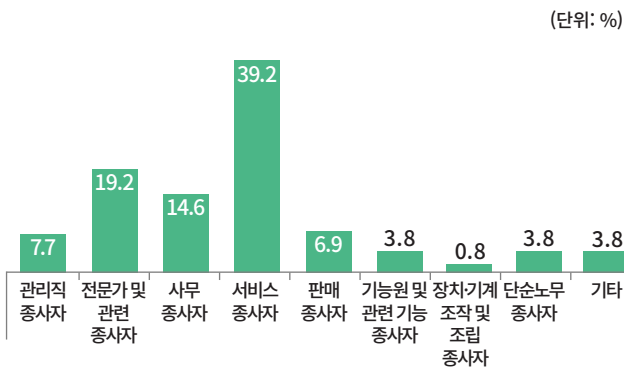
- 정규직 종사자의 근로소득(2022년)은 월평균 234.5만원이고, 비정규직 종사자는 183.6만원으로 정규직이 약 50.9만원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F=8.152***).
- 상용직 종사자의 근로소득(2022년)은 월평균 229.1만원, 임시직은 147.1만원, 일용직은 140.0만원으로 상용직이 약 82만원 ~ 89.1만원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F=1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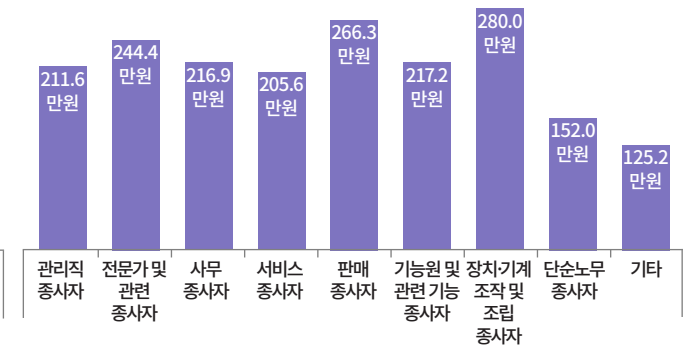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형태 및 고용기간별 근로소득 현황(2022년)

○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은 서비스직에 자립준비청년의 고용비율이 많은 편이며, 서비스직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5.6만원으로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보다 낮음.

- 직업별 근로소득을 보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이 28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판매직(266만원), 전문직(244만원), 기능직(217만원) 순으로 나타남.
- 자립준비청년의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직(206만원)과 사무직(217만원)은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은 편에 속함.



|그림 6|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직업 현황



|그림 7|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직업군별 근로소득 현황(2022년)

-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은 전국 서비스직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42만원 정도 낮으며, 판매직과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직업군의 근로소득의 하위 25% 정도 수준을 보임.
 - 전국 산업체 근로자²⁾와 자립준비청년의 직업별 월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서비스직의 경우 전국 근로자는 248만원이고, 자립준비청년은 206만원으로 약 42만원정도 차이를 보임. 전문직의 경우 역시 전국 근로자는 498만원이고, 자립준비청년은 244만원으로 약 254만원 정도 차이를 보임. 사무직은 전국 근로자 480만원이고, 자립준비청년은 217만원으로 약 263만원 정도 차이를 보임.
 - 자립준비청년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직, 전문직, 사무직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전국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보다 낮았고,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이 전국 근로자 하위25% 근로소득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1 | 직업별 근로소득 비교 현황

(단위: 만원)

직업	자립준비청년 월평균 근로소득 (A)	전국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B)	전국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하위25%)(C)	평균 근로소득 차이 (B-A)
관리자	212	1,201	682	9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4	498	263	254
사무 종사자	217	480	271	263
서비스 종사자	206	248	200	43
판매 종사자	266	402	235	1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17	372	247	15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280	358	236	78
단순 노무 종사자	152	244	198	92

자료 : 고용노동부(2022), '22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³⁾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별 근로소득 현황

- 성별 근로소득의 차이를 보면, 여성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남성 보다 약 24.5만원 적음.
 - 성별 근로소득을 보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근로소득(2022년)을 보면, 여성은 203.7만원, 남성은 228.2만원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약 24.5만원 정도 더 낮음($T=1.789^*$). 전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통계청, 2023)을 보면, 전국 20대(2021년) 남성이 251만원 여성이 229만원으로 여성이 약 22만원 정도 더 낮음.

2) 전국상용근로자(전일제 근로자)의 전 연령대 평균 임금수준으로 20대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과의 액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근로소득 차이를 통해 근로소득 격차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함.

3) 전국상용근로자(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며, '농업, 임업 및 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됨. 데이터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 중분류별 임금 증감률과 연계하여 2022.6월 기준 임금 수준으로 변환한 후 다시 연간단위로 환산('22.6월 기준 월급여×12개월)하여 제시하고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임금과 비교를 위해 12개월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현황 및 지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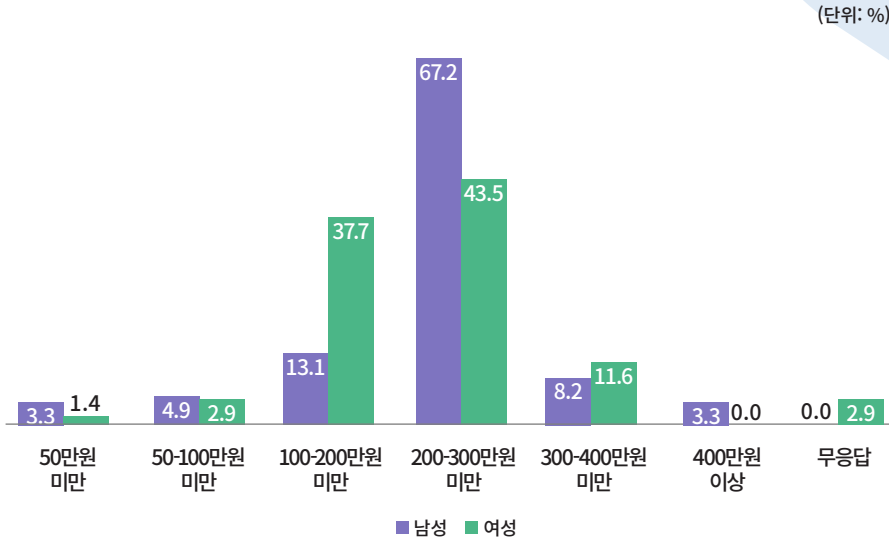


그림 8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성별 근로소득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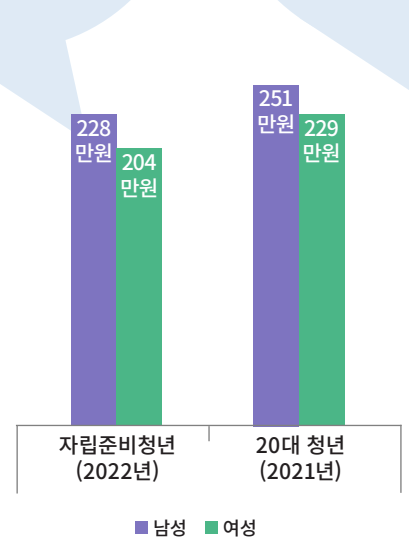


그림 9 | 성별 평균 근로소득 비교

○ 연령별 근로소득을 보면, 만 26세 ~ 29세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이 월평균 245.9만원으로 다른 연령 보다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은 만18세~25세의 비중이 가장 많고,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만26세~29세의 비중이 가장 많음.
- 연령별 평균 임금은 만18~22세가 평균 190.1만원, 만23세~25세가 217.6만원, 만26세~29세가 245.9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F=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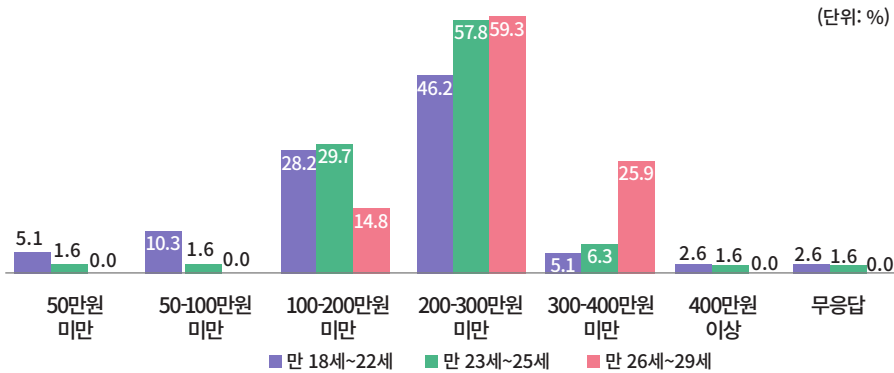


그림 10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연령별 근로소득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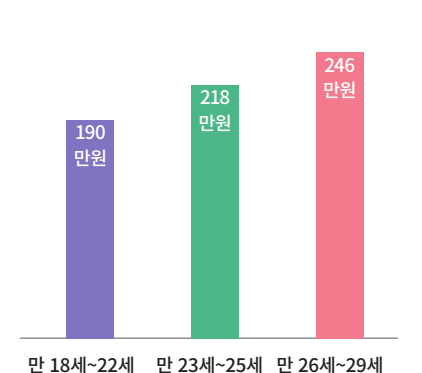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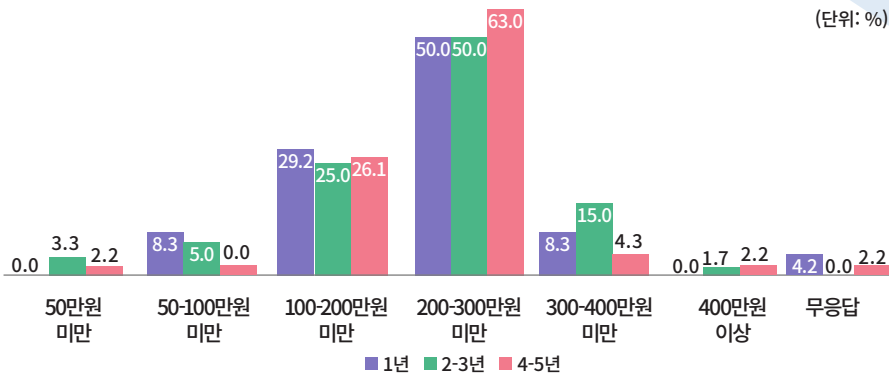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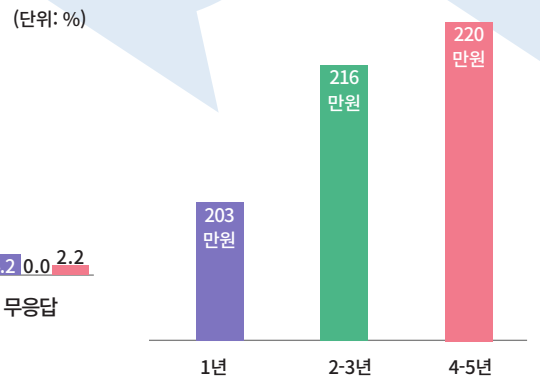
그림 11 | 연령별 평균 근로소득 비교

○ 보호종료연차별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보호종료 후 4-5년차가 220만원으로 가장 높음.

- 보호종료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보호종료 후 1년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보호종료 후 4~5년의 비율이 가장 많았음.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근로소득은 보호종료 후 1년차가 203.2만원, 보호종료 후 2~3년차가 216.4만원, 보호종료 후 4~5년차가 220.3만원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종료 후 기간에 따른 근로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그림 12]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연차별 근로소득 현황(2022년)



[그림 13] 연차별 평균 근로소득 비교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자립준비청년의 대부분은 정규직이며 상용직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0대 청년의 근로소득보다 낮고,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은 동종 직업 내 하위 25% 수준을 보임.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5.4만원으로 전국 20~29세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인 240만원보다(통계청, 2023) 24.6만원 정도 낮음.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속한 서비스직의 전국 근로자 월 평균 임금 248만원으로 사무직(월 평균 480만원)과 전문직(월 평균 498만원)보다 약 1.9~2.0배 정도 낮음.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직업별 근로소득은 전국 근로자의 동종 직업 평균 근로소득보다 낮았으며 약 하위 25%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 높음.
- 자립준비청년 내에서도 성별(여성<남성), 고용형태(비정규직<정규직), 고용기간(임시/일용<상용), 직업군별(서비스직, 사무직) 근로소득의 차이가 나타남.
 - 여성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204만원으로 남성 자립준비청년(월평균 228만원) 보다 약 24만원 적고, 20대 여성의 근로소득(월평균 229만원) 보다 약 25만원 정도 적음. 즉, 여성 자립준비청년은 성별에 따른 근로소득의 격차 및 동일 성별 내에서도 소득이 더 낮아 어려움이 가중됨.
 - 비정규직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83.6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약 50.9만원 낮았고, 임시/일용직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47.1~140.0만원으로 상용직보다 약 82만원~89.1만원정도 차이가 남.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분야는 서비스/전문직/ 사무직이 가장 많았는데, 전문직을 제외한 서비스직(206만원), 사무직(217만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은 전국 20대 청년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업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이 요구됨.
 -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높은 전세자금과 임대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큼(이주연, 최지훈, 2021⁴⁾). 특히 서울시 평균 전세가 가격은 약 4억5천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 가격인 2억 3천만원 보

4) 이주연, 최지훈(2021).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다 약 2배 정도 높음(한국부동산원, 2023⁵⁾).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통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보호종료 5년 이후 원활한 경제적 자립 이행을 위해 취업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준비 지원을 통해 고용형태 및 고용 기간에 따른 격차를 줄임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어도 저학력과 비숙련 상태로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하기 쉽지 않음(김지연, 윤경철, 2021⁶⁾). 이에 자립준비청년 개인의 역량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정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취업지원에 있어 성별 격차 줄일 수 있도록 여성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실태 및 취업지원 욕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영향으로 설명해왔으나, 경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신규 대졸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별 임금 격차는 남녀의 자질의 차이보다는 차별이 원인인 측면이 큼(유정미, 2017⁷⁾). 이에 청년세대에 나타나는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 성별 인적자원의 특성, 남녀의 차등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성별임금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자립준비청년 여성 고용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5) 한국부동산원(2023). '22.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부동산원.

6) 김지연, 윤경철(2021).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청소년정책연구원.

7) 유정미(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제33권 1호: 107-155.